

영적원리 XXVIII

일상안에 만들어진 특별한 장소와 순간 위에 하늘문이 열린다.

1.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기억'이 된다. 평범한 일상도 중요하지만 기억이 되는 특별한 순간들은 삶에 영향을 준다.

성경은 특별한 순간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기억이 된다. 다윗의 한 인생을 예로들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의 나열이 다윗의 인생이 된다.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다윗 - 밧세바 사건 : 꼭 좋은 특별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

2. 내 인생에 기록된 특별한 순간

그렇다면 내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기록된 특별한 순간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중요하다. 특별한 순간과 장소가 주는 아주 강력한 예가 야곱의 삶 가운데 있다.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좇는 간절한 삶이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다.

[창세기 28:11-22]

11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 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18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20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21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2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다.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열린 하늘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드디어 듣는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인내하여 살아온 삶 위에 하나님이 복이 드디어 임했다. 17절에 보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명시되었다. 야곱은 하늘문이 열린 이곳을 '베델'로 이름하였다. 그리고 베델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벤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장소 위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특별한 장소, 시간, 사람, 순간'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장소 '벤엘'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3. 영적원리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과 장소를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 그 특별한 장소에 하늘문이 열리며 복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벤엘을 만들면 그곳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1)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라.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통해 예비된 어린 양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2)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여인의 이와 같은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셨다.

[마가복음 14:3]

3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가복음 14:9]

9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영적원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순간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다.

4. 십자가 - 그 특별함

그렇다면 가장 특별한 장소와 순간은 어디일까? 그곳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시킨 예수님의 절대적 특별함이 그 십자가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잊지 못하신다.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린다.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 된다.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바로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나는 자리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이 특별하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궁금한가?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벤엘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특별한 장소를 만들자. 그곳에 하늘문이 열린다.